

학교밖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박 하 은¹⁾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 수 진²⁾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가족상담학과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천, 광주, 전남지역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다니고 있는 17세~24세의 학교밖 청소년 1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성숙,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교를 떠난 기간에 따라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인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변인은 진로성숙의 모든 하위변인 및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의 모든 하위변인은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교밖 청소년, 진로장벽, 진로성숙, 회복탄력성

* 본 논문은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9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함.

1)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졸업

2) 교신저자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조교수 (E-mail: spring730@hyo.ac.kr)

I. 서론

현재 학교밖 청소년의 수는 약 39만 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약 5만 명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YTN 열린 라디오, 2019).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0호)에 의하면 ‘학교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면서 진로 발달 단계에 따라 직업 세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청소년기에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진로에 관한 지도가 필수적이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은 일반학교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 탐색이나 진로개발을 위한 수행에 제한적이라는 것이 현실이라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성인이 전 준비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이자형, 2015). 이러한 발달적 맥락에서 진로를 바라보는 개념 중 하나가 진로성숙이다. Super(1955)는 진로발달의 지표로 진로성숙도의 개념을 처음 소개하였고, 진로성숙을 자신과 사회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역할을 탐색, 계획, 결정, 수정을 반복하면서 진로에 대한 의식과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자 한 개

인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라고 하였다. 나아가 진로성숙은 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이며,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것으로 책임지고, 외적 보상보다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만족을 원하는 것(이기학, 한종철, 1997)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을 돕기 위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탐색 과정의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서 진로 및 직업 체험의 활성화를 강조하였고,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여 입시 중심의 교육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노지혜, 2018).

하지만 청소년의 진로 탐색 과정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학교를 통해 제공되므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진로 탐색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2018)에 의하면 학업중단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 응답이 35%에 달하고 있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을 근거로 전국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에 요청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한 서비스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진로 관련 서비스 수요를 꿈드림센터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등, 2016). 학교밖 청소년들이 진로준비와 관련해

여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 관리 및 활용을 잘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 정보 수집에 대한 어려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어려움, 목표와 목적의식 부족, 자신감 부족, 정서적 지지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김지혜, 2008). 이를 통해 공교육의 제도권 안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통해 발달과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반학교청소년에 비해,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진로 가치관을 성숙시켜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진로성숙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밖 청소년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진로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직업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개인의 진로목표를 방해하거나 진로과정을 어렵게 하는 개인 내적, 환경적인 사건 또는 상황들을 진로장벽이라고 한다(손은령,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낮아진다고 하였다(노성미, 2014). 또한, 지각된 진로장벽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아지지만, 희망이 진로장벽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을 조절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관성, 이안숙, 2018).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들의 진로장벽 요인을 확인하여 이 요소들을 극복하고 진로성숙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변인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진로장벽 및 진로

성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경선, 남현우, 2011), 낙관성(김경미, 배영광, 민이슬, 장성화, 2014), 희망(김향란, 2017) 등이 있다. 이들은 역경에 처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려는 현상이라는 비슷한 개념적 맥락을 지닌다.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변인들과 유사하게 진로장벽의 영향을 줄이고 진로성숙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요인 중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이나 질병으로부터 신속하고 강인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적응유연성, 탄력성, 회복력, 극복력, 자아탄력성 등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윤혜선, 2010),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으로 사용한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직면한 스트레스나 역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자원임과 동시에 장차 다가올 스트레스나 역경을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우열, 최민아, 김주환, 2009). 문은숙(2010)은 회복탄력성이 역경이나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능력이나 기능을 상실하지만,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되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회복탄력성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허숙영, 2013).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낙관성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김경미 등, 2014)을 미치며, 회복탄력성과 동일한 개념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자아탄력성도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이경선, 남현우, 2011).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학교밖 청소년이 진로를 준비하고 성숙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이 이를 어렵게 할 때, 진로장벽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변인인 회복탄력성을 통하여 진로장벽 수준을 낮추고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밖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밖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광주, 전남에 소재한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 지원센터 16곳과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를 이용하는 17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실시 전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연구승인을 받았다(1040708-201904-SB-010).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에 협의된 각 센터의 실무책임자를 통하여 연구목적을 소개한 후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만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200부를

우편조사 방법을 이용해 각 센터로 전달하였고, 회수되지 않은 19부를 제외한 총 181명의 자료를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181명 중 남자는 95명(52.5%), 여자는 86명(47.5%)이었다. 연령은 17세 21명(11.6%), 18세 55명(30.4%), 19세 55명(30.4%), 20세 25명(13.8%), 21세 이상은 24명(13.8%)이었다.

2. 연구도구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혜경(2008)이 성별 차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성 역할 갈등 및 성차별’ 영역 문항을 수정하여 ‘진로탐색장애검사(KCBI: 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와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를 사전검사를 통해 하나의 문항으로 통일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청소년 진로장벽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이해 부족(4문항), 자신감 부족(11문항), 성역할갈등 및 성차별(8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6문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4문항),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4문항), 경제적 어려움(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진로장벽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었다.

진로성숙 척도

진로성숙은 다양한 하위영역들로 구성되며,

계획성,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타협성, 진로 관심, 진로효능감 등을 통해 측정된다. 진로성숙 측정 도구들은 구체적으로 진로성숙 변인을 알아보기에는 유용하나, 대부분 70여 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수가 많으면 설문이 길어져 청소년들이 응답에 불성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2006)이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계획성, 독립성, 태도, 자신지식, 진로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각 하위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평균이 그 하위 변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전체 문항의 평균을 진로성숙 점수로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회복탄력성 척도

회복탄력성 척도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이 2009년에 개발한 YKRQ-27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회복탄력성을 3가지 형태의 9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현상으로 정의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다양한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번역이 잘못되었거나 어색한 것들을 수정하여 새로이 27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에 대해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SPSS PROCESS Macro 3.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학교밖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인 진로장벽, 진로성숙, 회복탄력성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진로장벽, 진로성숙,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고자 각 측정 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는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진로장

표 1.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N = 181)

	진로장벽	진로성숙	회복탄력성
진로장벽	1		
진로성숙	-.60**	1	
회복탄력성	-.61**	.66**	1
M	1.99	2.99	2.88
SD	0.50	0.40	0.42
왜도	0.01	0.01	-0.06
첨도	-0.29	-0.20	-0.20

** $p < .01$

벽과 진로성숙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진로장벽과 회복탄력성 간에도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회복탄력성과 진로성숙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측정 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 값은 -0.06~0.01로, 첨도 값은 -0.29~-0.20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댓값 2를 초과하면, 첨도는 절댓값 7을 넘지 않으면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West, Finch, Curran, 1995).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 변인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2. 학교를 떠난 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차이

학교를 떠난 기간에 따라 진로장벽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F = 3.70, p < .05$)만 학교를 떠난 기간이 3년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4번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진로장벽은 진로성숙에 부적 영향($\beta = -.31,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장벽과 회복탄력성을 동시에 투입한 후 진로장벽은 진로성숙에 부적 영향($\beta = -.16,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에는 부적 영향($\beta = -.33,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표 2.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변인	β	se	t	LLCI*	ULCI**
진로장벽→회복탄력성	-.33	.03	-10.36***	-.39	-.27
진로장벽→진로성숙	-.16	.04	-4.64***	-.23	-.09
회복탄력성→진로성숙	.44	.07	6.84***	.31	.57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 $p < .001$

표 3.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매개변수	간접효과	se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회복탄력성	-.15	.03	-.20	-.09

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은 진로성숙에 정적 영향($\beta = .4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고, 매개변인을 추가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거나 사라져야 한다. 본 연구모형에서 진로장벽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이 추가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검증 결과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값(-.20 ~ -.09)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회복탄력성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나아가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 결정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학교밖 청소년들이 이를 잘 극복하여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서울, 인천, 광주, 전남에 소재한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 지원센터와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를 이용하는 17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SPSS PROCESSmacro의 모델 4번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장벽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회복탄력성을 통해서 진로성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들(이순환, 2010; 김영심, 201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상은

다르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장이슬(2015)의 연구에서도 회복탄력성을 통해 진로장벽의 영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하정(2019)의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심리적 진로장벽의 영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혜경, 권재환, 2019)를 통해서도, 회복탄력성이라는 긍정적인 자원이 학교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에 대한 어려움 및 좌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를 낮추어 이들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할 경우, 회복탄력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개입을 통해 진로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역할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권 밖에 놓여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발달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면 진로에 대한 주도성과 계획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통해 진로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교를 떠나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걸림돌의 부정적

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보다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계획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나아가 소외가 아닌 주체로서 사회에 건강하게 자리매김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학교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진로장벽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는 상반된 선행연구 결과가 있어 본 연구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하고자 분석하였으나, 검증 결과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성숙, 회복탄력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진로장벽 인식에 차이가 없다는 심정은(20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장이슬, 2015; 박지현, 황미영, 2017)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성별이라는 이분법적 기준보다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잘 고려한 기준을 통해 추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학교를 떠난 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성숙, 회복탄력성의 차이검증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인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에서 학교를 떠난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떠난 기간이 3년 이상인 학교밖 청소년 집단이 학교를 떠난 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보다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을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학교를 그만둔 지 1년 미만이 된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준비(48%), 진학 정보제공(25%) 순으로 응답하였고, 1년 이상 3년 미만의 청소년들 또한 검정

고시 준비(36%), 진학 정보제공(32%)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3년 이상의 청소년들은 진로 탐색 체험(21%)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검정고시 준비(19%), 심리적 안정 지원(19%) 순이었다. 이를 통해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에게 더욱 체계화된 진로정보 제공 및 실제로 현장과 연계된 직업·진로 체험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학교를 떠난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진로정보 및 진로준비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한정된 지역에서 표본 모집을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 대부분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다니는 청소년으로, 그 이외에 곳에서 생활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센터나 대안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또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소외된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포함하는 체계적 표본추출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지만 검증하였기에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위한 제한된 기초정보에 그쳤다. 후속연구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연구가 이어진다면 학교밖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을 돕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8). 교육통계서비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경미, 배영광, 민이슬, 장성화 (2014). 진로정체감과 Krumboltz의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497-508.
- 김영심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질적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란 (2017). 중학생의 희망이 성취동기,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미래교육과학연구*, 30(1), 85-104.
- 노성미 (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지혜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변인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숙 (2010).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관성, 이안숙 (2018).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2018(8), 244-244.
- 박지현, 황미영 (2017).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

- 체 감의 조절 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1-24.
- 박혜경, 권재환 (2019).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6(2), 131-148.
- 법제처 (2017).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 법제처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상담학연구, 2(2), 251-262.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심정은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좌절된 소속감과 지각된 진로장벽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경 (2008). 희망, 부모지지,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8).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양원(PD) (2019.3.11). 학교밖 청소년 해마다 5만명, 학생이 아니라 교육지원 없어. 열린라디오 YTN. YTN.
-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 박예슬, 이지혜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14.
- 윤혜선 (2010). 자아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 탄력성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선, 남현우 (2011).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0, 233-256.
-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1), 219-255.
- 이순환 (2010). 평생교육원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자형 (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22(10), 289-316.
- 이하정 (2019).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이슬 (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고용정보원 (2006).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 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허숙영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성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2(1), 3-4.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1 차원고접수 : 2020. 04. 10.

수정원고접수 : 2020. 06. 15.

최종게재결정 : 2020. 06. 17.

Mediated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maturity as perceived by school-leaving students

Park, Ha-Eun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 Shin University

Kim, Soo-Jin

Dept, of Family Counseling,
Sung San HYO University

This study's purpose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career barrier realized by out-of-school adolescents and to verify whether the resilience serves as a mediator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o this end, 181 out-of-school subjects aged between 17 and 24 who attend out-of-school support centers in Incheo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s were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from a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a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variable utilized are as follows. First, no significant difference were found between career barrier, career maturity and resilienc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owever,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the time away from school, there appears to be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gard to the lack of career and professional information, which is a sub-variable of the career barrier. Second, all sub-variables of the career barrier of youth outside of school appeared to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all sub-variables and resilience of career maturity, while all sub-variables of career maturity appeared to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all sub-variables of resilience. Third, the resilience of youth outside of school was found to serve as a partial parameter of the impact of a career barrier on career matur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limitations, and possible subsequent recommendation was discussed.

Keywords: adolescents out of school, career barriers, career maturity, resilience